

열악한 출판현실 속 '문예지' 다시 통할까

CULTURE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계간 종합문예지 여름호 살펴보니

시와사람...고흥 출신 송수권 시문학세계 재조명 문학들...12·3비상계엄 문학적 고뇌·고찰 특집 타깃형 내용 특집·기획 등 독자들 몰입감 견인



'시와사람' 발행인 강경호 '문학들' 발행인 송광홍

갈수록 열악해지는 문예지 시장에서 여전히 자기 소임을 다하며 독자들을 매 분기마다 찾아오는 문예지들이야말로 그 어떤 출판물보다 귀중하기 이를 데 없다. 그것은 문예지로 출판사의 흑자를 이루기 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출판사에서 돈 잡아먹는 하마같은 지점에 있는 것이 문예지로 인식된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문학인들의 자존심이 대준 문예지들은 올 여름 문학의 지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계간 '시와사람'과 '문학들' 등 문예지들의 여름호를 살펴봤다.

있기 때문이다. '남도 시의 정수 송수권의 문학세계 (1)'라는 제목으로 10회 연재될 예정이다. 조명이 나선 이승하 교수(중앙대)는 등단작 4편을 살피고 있다. 송수권 시인의 대표적인 '산문에 기대어'를 비롯해 '빨랫줄', '부두로 가는 길목에서', '祭사날' 등이다. 생전 송 시인은 시집 18권과 시선집 10권, 산문집 10권, 이 밖에 시 창작 입문서와 장편 동화, 정년기념 논문집 등도 펴냈다고 소개한다. 송 시인에 대한 삶과 작품세계를 전방위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이승하 시인은 "이 연재물은 10회가 예정돼 있다. 시선집이나 시 창작 입문서를 제외하고 시집 18권에 산문집 10권을 넣으므로 정발 방대



계간 '시와사람'과 '문학들' 등 문예지

한 분량의 작품을 썼다. 지금까지 많은 논문과 평론이 나왔지만 시집 전권과 산문집까지 통틀어 연구 대상으로 한 송수권론은 나온 적이 없었다. 앞으로 송수권의 전 저작을 대상으로 해 송수권론을 써볼까 한다"고 밝혔다.

또 전남·광주 지역문학의 은사라기 금사라기 코너도 정성을 많이 들은 코너로 읽힌다. 이번에는 11번째를 맞아 '동인지 등화와 곡성 시인 차의섭의 걸음길'을 다루고 있다.

이러 계간 '문학들' (발행인 송광홍)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라 내란세력 척결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 이전에 비롯됐던 12·3비상계엄 사태의 6개월여 간 표류로 극심한 국가적 혼란을 겪어온 시국에의 문학적 고뇌와 고찰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시의적절한 특집이라는 반응이 따르고 있는 이번 여름호 특집에서는 계엄 이후의 문학에 대한 조명을 시도하고 있어 한발 빠른 답론의 전개라는 평이다. '계엄 이후의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다뤄진 이 특집에는 서동진의 '정치와 반정치, 비정치: 내란 정국의 정치를 생각한다'와 권김현영의 '촛불에서 응원봉으로의 상징 전환: 사물, 장소, 주체의 변화'가 각각 다뤄지고 있다. 서동진은 계엄과 현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를 돌아보며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를 따져보고 있다. 이제 광장의 정치

가 비정치와 반정치의 지렛대가 되지 않고 변혁으로서의 정치로 나아가는 좌표의 자리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김현영은 '광장'의 주역으로서의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008년 촛불집회, 2016년의 탄핵광장, 그리고 2024년 또 한 번의 탄핵광장의 온전한 주체로서 여성들의 고투들을 세세히 살피고 있다. 2024년 탄핵광장의 주요 전환적 장면이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상징이 변화했는데 이제 응원봉이 아티스트 응원 도구를 넘어 저항의 표식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권김현영은 결론글 계엄이후를 통해 비상사태라는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상호의존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갔는지를 시작으로 다시 잡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친다.

그리고 발행 겸 편집인을 맡고 있는 광주 송정출신 박몽구 시인이 경기도에 머물며 펴내고 있는 계간 '시와문화'는 '젊은 시인들의 시세계와 세계관'이라는 특집에 박몽구 시인의 '진정한 해체의 정신과 실천' 및 장수철 시인의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나는 청춘의 얼굴들'이 실렸으며, 특별기획으로 '계엄, 그리고 탄핵과 시'가 소개되고 있다.

이외에 '생명문화' (편집주간 김운환) 여름호는 특집비평으로 2000년 이후 한국시의 리얼리즘 또는 젊은 시의 서정성 등을 다루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이탈리아 거장 파솔리니' 대표작 극장서 만난다

이탈리아의 거장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의 사후 50주년을 맞아 그의 대표작 5편을 극장에서 만나볼 기회가 마련됐다.

(사) 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는 '사후 50주년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 특별전'을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진행한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와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서울아트시네마가 공동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 광주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1963년 처음 공개된 뒤 2008년에 새롭게 복원한 '파솔리니의 분노'를 포함해 '맘마 로마', '마태복음', '돼지우리' 그리고 파솔리니의 유작인 '살로, 소돔의 120일'을 만나볼 수 있다.

18일 첫 상영작 '맘마 로마'는 거리의 부랑자로 커 가는 아들과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매춘부 여성의 이야기가 황량한 로마 교외를 무대로 펼쳐진다. 비스콘티의 영화 '벨리시마' 등에서 신화적인 어머니 상을 보여준 안나 마니니가 신들린 듯한 연기의 경지를 보여준다.

이밖에 1963년 전후의 논쟁적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되짚으며 부르주아들이 득세하는 현

영화영상인연대 특별전

18~22일 독립영화관서

이탈리아문화원 공동주최

'파솔리니의 분노' 등 5편

실과 역사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파솔리니의 분노' (1963), 성경의 마태복음에 기초해 예수의 활동과 죽음을 그린 작품인 '마태복음' (1964), 두 부분으로 이뤄진 영화를 통해 사람이 돼지보다 못하며 진흙탕 같은 세상의 현실이 카니발의 알레고리와 같음을 역설하는 '돼지우리' (1969), 그리고 마르키 드 사드의 소설을 파솔리니가 2차 대전 중의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각색한 '살로, 소돔의 120일' 등 다채로운 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

파솔리니(1922~1975)는 시인이자 영화감독으로 영화사에서 가장 논쟁적이며 매력적인 감독으로 평가받는다. 사회 일반의 부조리와 금기를 타파하는 작품세계로 세계영화사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특히 파솔리니 감독의 비극적 죽음을 일으킨

유작 '살로, 소돔의 120일'은 세계영화사에 등재된 영화지만 아직까지도 폭력과 외설의 눈경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작품이다.

영화 '마태복음'에는 '호모 사케르'로 현대 철학의 새 지평을 연 철학자이자 비평가 조르조 아감벤이 예수의 열두 제자 중 발립력으로 출연하는 것도 관람 포인트 중 하나다.

아울러 21일에는 오후 5시 20분부터 파솔리니 영화 세계에 입문하는 시네필들을 위한 민진영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의 '파솔리니라는 세계영화사의 거인' 시네토크가 예정돼 있다.

이상훈 이사장은 "OTT의 시대 극장에서 20세기의 영화는 철 지난 복고 유행이 아니라 AI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창의적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광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시간표와 상영작 정보는 광주독립영화관 인스타그램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매는 디트릭스에서 가능하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영화 '살로, 소돔의 120일' 스틸컷



영화 '돼지우리' 스틸컷

"이순신 장군 장계문 장소는 벽파진"

'문화통plus' 여름호 발간...운주사 집중탐구

(사) 광주문화발전소(발행인 지형원)가 발행하는 '문화통plus' (여름호, 통권 55호)가 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에디터 레터 '알파람이 빛어낸 가짜친사'를 시작으로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장계를 올린 장소가 벽파진이라는 증거를 장군의 조카 이분이 쓴 '행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 이은 운주사 집중탐구에서 운주사

는 법화경의 체험현장으로 천책스님이 창건했으며, 천불천탑은 만연사 백련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이 만들었고 와불이 일어서면 도움이 된다는 것도 천도가 아닌 서방서천 하늘로 오르는 천도승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박형상 변호사의 주장을 실었다.

특집으로 광주·전남 문화답사의 마형인 광주민학회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봤으며, 전라도 문화



수수께끼 '함평 도평마을에 총노비가 세워진 까닭'과 '동동구루무장수' 김영창 명인의 삶도 들여다봤다.

신설 코너 '옛편지'에서는 결혼 50여일 만에 남편을 여의고 해남 운서 가문을 일으킨 보성 출신 광주이씨 한실 할매의 '규한록'을, '전라도 나무 이야기'에서는 나주 금성관 천년수 은행나무 스토리를 게재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그룹 방탄소년단(BTS) RM과 뷁이 10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체육공원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역 BTS' RM·뷔 "무대 복귀 빨리 하겠다"

국내의 팬 수백명 춘천시 환대·외신 취재 열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본명 김남준·31)과 뷁(본명 김태형·30)가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10일 사회로 복귀했다.

RM과 뷁은 이날 각 부대에서 퇴소한 뒤 강원 춘천시 신북읍 읍문리 신북읍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팬들에게 전역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이 오전 9시께 각자 차에서 내린 뒤 서로 가볍게 포옹하자 팬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RM은 선글라스를 낀 채 색소폰으로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을 연주하며 팬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고, 뷁은 두 손에 꽃다발을 한 아름 들고 밝은 미소를 띠며 등장했다.

팀의 리더 RM은 "공연이 제일 하고 싶다. 빨리 앨범을 만들어서 다시 무대로 복귀하도록 하겠다"며 "부대 복귀 그만하고 무대 복귀를 빨리 하겠다"다.

다시 BTS의 RM과 뷁이 인사드리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M은 "저희는 역대 가장 짧은 군 복무를 했고, 또 여건도 많이 좋아졌다.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

지만, 군 생활을 통해 전방·후방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싸워줘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팬분들에게 기다려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뷔는 "군대는 몸과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잡는 시기였다. 저는 제 몸과 마음을 다시 만들었다"며 "하루빨리 '아이미'들에게 달려가고 싶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정말 맛있는 무대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서 좋은, 맛있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의 '아이미' 수백명은 이른 시간부터 부대와 전역 기념식이 치러지는 축구장 앞에서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두 사람의 전역을 축하했다.

필리핀에서 온 간 트와노(39) 씨는 "BTS의 팬이라 여동생과 지난 7일부터 춘천에 와 있었다"며 "전역 이후 BTS가 보여줄 행보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장에는 두 사람의 전역 기념식을 화면에 담은 려는 의신도 다수 눈에 띄었다. 연합뉴스